

2023년 5월

주간 축산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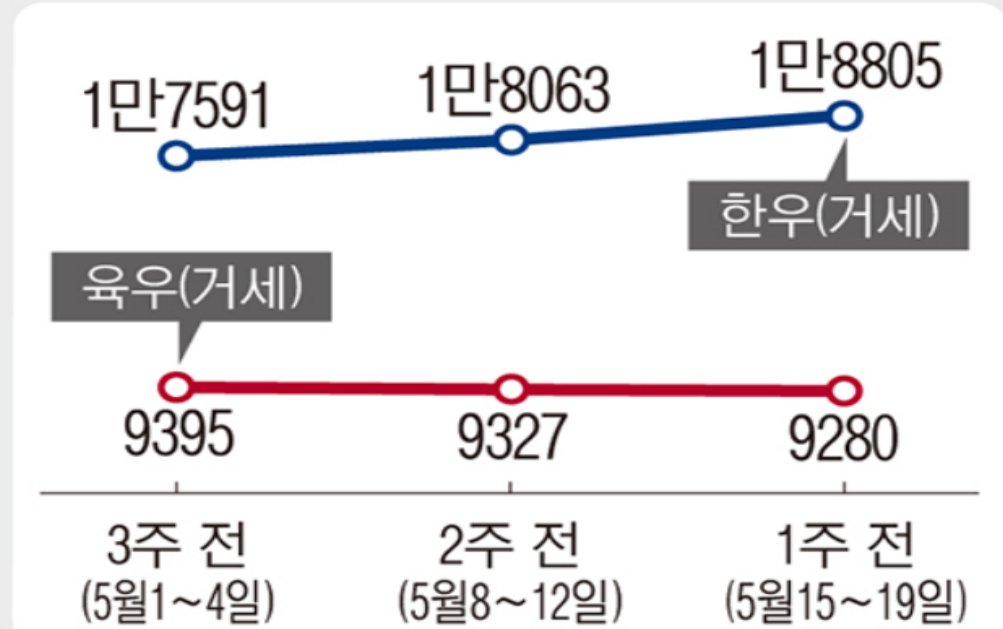
뉴스클리핑

5월 4주차 HOT ISSUE

- 미국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
- FDA, 식물성 음료는 ‘우유’의 대체품 될 수 없어

쇠고기 평균 경락값

단위 : 원/지육 1kg



**축산물 출하정보<소>
(5월15~19일)
구제역 영향 경매 줄어
값 올라**

전주에 이어 지난주에도 한우고기값이 상승했다.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우제류 이동제한으로 경매장 물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구이 부위 소비가 다소 증가한 것도 값 상승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한우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1만1588마리가 경매됐다. 한우 거세우 평균 경락값은 지육 1kg당 1만8805원으로 전주 대비 742원 상승했다. 1++A 등급은 559원 상승한 2만3460원, 1++B 등급은 560원 오른 2만1932원이었다. 육우 거세우는 1057마리가 거래됐고 1kg당 평균 경락값은 47원 하락한 9280원이었다.



허가-이력 정보매칭 사각지대, 소규모 번식농가 폐업 내몰려

정부가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정보와 축산물 이력 정보를 일치시키는 매칭 현행화를 추진하면서 대부분 한우 번식우 기준 5두 미만인 소규모 농가들이 타의에 의해 농장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등록이 필요한 면적(50㎡)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농가들은 한우 번식우 5두 이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소 생산 농가라는 점에서 정부의 폐업유도가 한우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이덕우 회장(남양주축협장)은 “정부의 매칭 현행화의 대상은 지금의 한우산업이 있기까지 오랜 시간 생업으로 번식우를 사육해온 농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폐업하면 결국 한우 송아지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한우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했다.



미국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발생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했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20일 미국의 정기적인 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의 검사 결과 테네시 주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 이번 발생과 관련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및 테네시 주 내에는 한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도축장과 가공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 조짐 한우가격, 구제역 ‘찬물’ 우려



김삼주 회장은 직원들에게 구제역 발생관련 사항을 최우선 업무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상황실을 열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수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 김영원 국장은 “구제역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방역당국과 협조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의심축 발생 신고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조기발견 및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협회의 비상망을 24시간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농가는 “가격급락이 잡히고, 어느 정도 회생의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구제역이 터졌다. 차단방역에 온힘을 쏟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이번 기회에 농가들이 다시 한 번 가축질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FDA, 식물성 음료 는 ‘우유’의 대체품 될 수 없어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식물성 대체음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FDA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와 유사하지 않으며, 대체품으로 칭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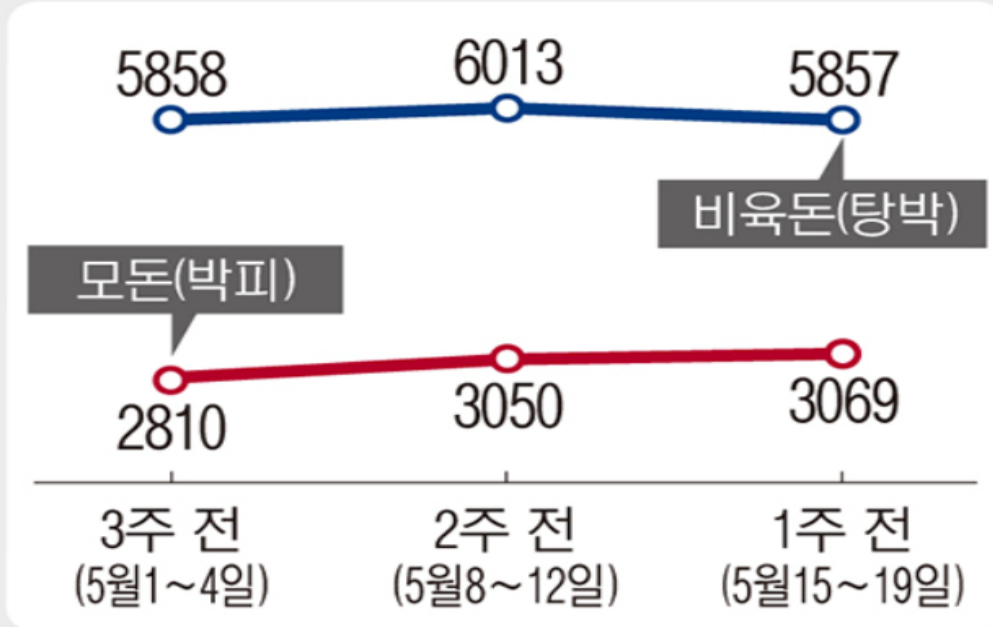
FDA는 ‘우유 대용품 연구’에서 식물성 대체음료가 우유의 대체물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우유와 같은 영양소를 포함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제품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A, 비타민D, 마그네슘, 칼륨이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FDA는 올해 2월 식물성 대체음료를 ‘우유(Milk)’로 표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소비자가 우유와 식물성 대체음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라벨링을 제공할 것은 권고했다.

W:SWINE

돼지고기 평균 경락값 단위 : 원/지육 1kg



**축산물 출하정보<돼지>
(5월15일~5월19일)
물량증가에도
가격 소폭 하락**

지난주 돼지고기값은 하락했다. 돼지의 경우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아 소와 달리 이동제한에 따른 경매물량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주 공판장 경매물량이 증가하면서 값 하락세를 보였다. 날씨가 좋아 야외 나들이 소비가 늘어난 탓에 물량 증가에도 값은 소폭 하락에 그쳤다.

돼지는 지난주 전국 도매시장(탕박 기준, 제주 제외)에서 9467마리가 경매됐다. 지육 1kg당 평균 경락값은 5857원으로 전주 대비 156원 하락했다. 모돈(박피) 1kg당 평균가격은 19원 상승한 3069원이었다.

**“재고 넘치는데
할당관세
수입이라니”**

**한돈협 성명,
일시적 상승
인지 불구
‘자기모순’ 정책**

〈표〉 2023년 수입 돼지고기 관세율

구분	부위	브라질	멕시코	캐나다(22/23)
냉장	삼겹살	22.5%	22.5%	8.6% → 6.9%
	기타	22.5%	22.5%	8.6% → 6.9%
냉동	삼겹살	25.0%	25.0%	9.6% → 7.7%
	기타	25.0%	25.0%	0.0%

* 자료 : 관세청, 2023년 관세율표

〈표〉 수입국 가격 동향

국가명	현지 도매 가격	원화 환산사* (원/kg)	2023년 평균 국내 입고 가격** (원/kg)
한국	5,850원/kg	5,850(100.0)	5,850
브라질	6.45BRL/kg	1,490(392.6)	4,005
캐나다	188.72CAD/100kg	1,721(339.9)	4,460
멕시코	27.42MXN/kg	2,048(285.6)	5,006

* 자료 : Genesis, Genesis Global Market Report, 도매 가격은 한국 23.05.17 기준 (5/17 환율 1,339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돼지고기 수입 처리 현황 (23년 평균 환율 1,293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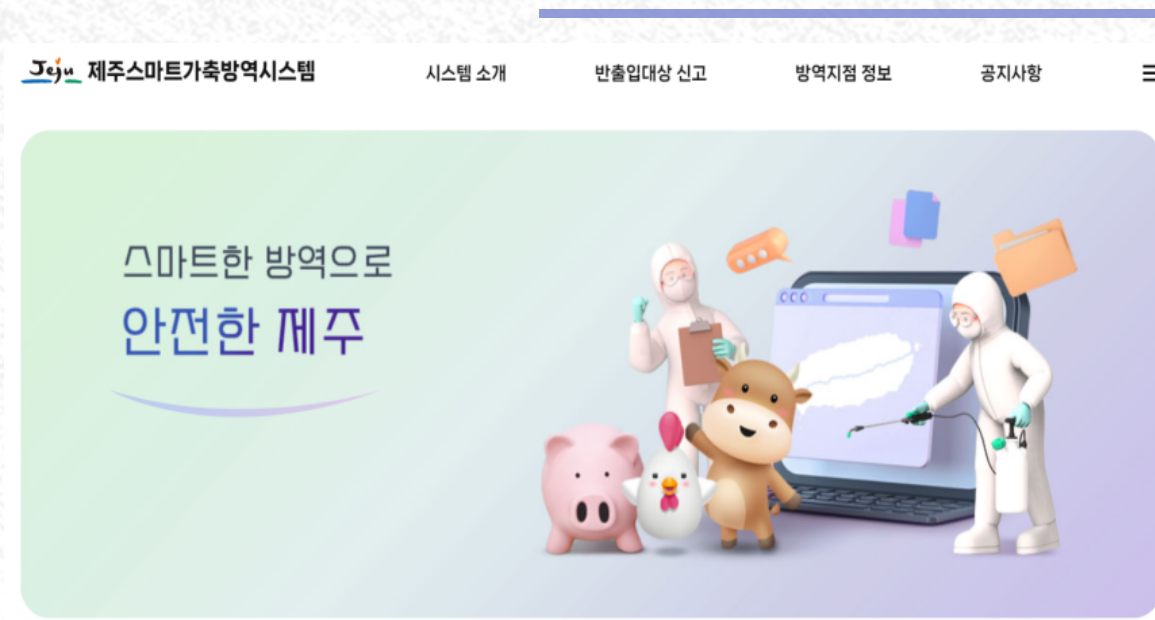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수입 방침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26일 정부 방침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간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최근의 돼지가격 일시적인 상승이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 따른 착시현상임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할당관세 수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돼지고기 재고량이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서며 연중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 수입물량은 추석 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 돼지가격 폭락을 초래, 한돈산업을 파괴하고,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자기파멸적 정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 시스템 개설



웹사이트 주소

<https://animalhealth.jeju.go.kr/>

제주도는 지난 15일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한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 시스템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전자 기기를 활용해 효율적인 가축방역 정책 추진 및 농가 편의를 제고할 것이란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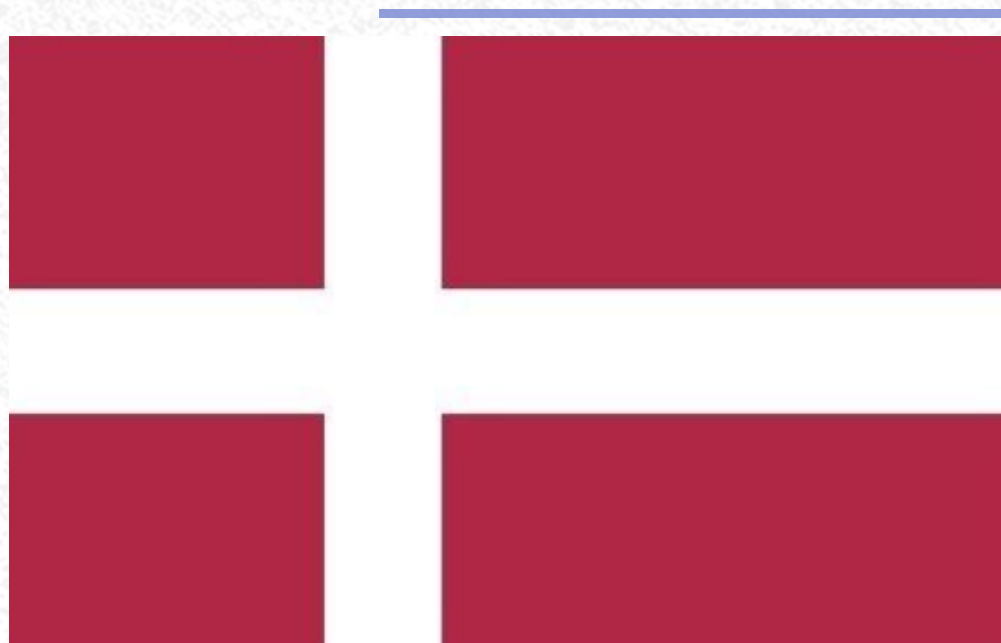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시스템은 농가, 가축사육 현황 등 방역 관련 기초데이터 관리 및 타 시도산 가축·축산물 등 반입신고, 그 외 법률안 개정사항 등 정보 공유를 주요 기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종이문서로 처리된 가축·축산물 등 반입신고를 전자화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신고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SWINE

**덴마크도
돼지 1천만두
‘간당간당’**

**1천73만두
전년비 14% ↓
고돈가에도
두수 안 늘려**



최근 덴마크 통계청에 따르면 4월 1일 기준 돼지 사육두수는 1천73만마리로 지난 1월(1천154만마리)보다 7.1%, 지난해 동월(1천247만마리)에 견줘 14%가 각각 줄었다.

유럽 연합 내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덴마크 역시 돼짓값이 고공행진 중이지만 농가들은 돼지를 늘리기는커녕 더 줄인 것이다. 돼짓값은 높지만 여전히 높은 생산비와 이로 인해 두수를 늘릴 정도의 수익성을 거두지 못한 것이다. 거기다 계속 강화되고 있는 환경 관련 규제도 두수 증가를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돼지 사육두수가 줄면서 4월말 덴마크의 돼지 도축물량은 16.6% 줄었고 이에 따라 덴마크 크라운은 최근 주요 도축 시설을 폐쇄키로 했다.

네덜란드 가축 줄이기 계속될 듯

EU 축산 폐업 보상 계획 승인
14억7천만유로 규모
...28년까지
“농가 자발적 폐쇄 촉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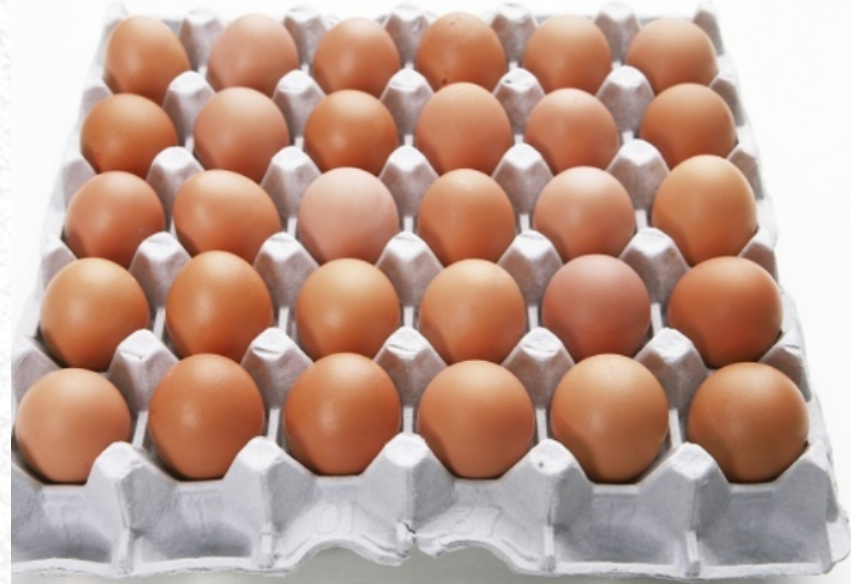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EU 국가 원조 규정에 따라 총 14억7천만 유로 규모의 네덜란드 축산농가 폐업 보상 계획을 승인했다.

이 계획은 Natura 2000(EU 자연보호구역) 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폐업 시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28년 2월 28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EU 위원회 관계자는 이 계획과 관련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폐쇄를 촉진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에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산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가축 사육두수를 줄여 질소 배출을 감축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반발, 19년 10월 처음으로 정부의 질소 감축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으며 이후로도 산발적으로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계란 가격하락 우려, 현실되나

이달 들어
공급량 증가...
산지시세
약보합세 전환



5월이 끝나가는 가운데, 시장의 계란 유통흐름이 심상치 않다. 중순 경 물량이 늘어나더니 이내 산지 계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5천원대에서 형성됐던 계란 산지 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특란 30구 기준)은 정부의 비축물량 방출 등의 여파로 지난 2월 한때 4천91원까지 하락했었다. 이후 시장이 정돈되며 다시 시세가 제 자리를 찾으면서 이달 중순까지 5천원대 초반 선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당초 업계서는 산란계 사육수수를 토대로, 이달부터 계란시장은 공급과잉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공급물량이 늘지 않는 것은 일선 농가에서 발생한 질병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일 뿐, 생산 잠재력 자체가 높다는 분석. 불행히도 이같은 예상이 맞아 떨어지며 지난 22일부터 계란 산지 가격은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계란 가격 폭락의 전초일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절기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

산란계 농가, 안전관리 만전을



정부가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충제 검사를 올 한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하절기를 맞아 지자체들이 계란에 대해 살충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산란계 농가들에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는 대상 살충제 성분 34종에 대해 검사가 실시되며,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란의 출하중지, 회수·폐기 조치 및 전문방제업체의 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원인조사를 통해 농가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산란계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리로 2018년 이후에는 계란 검사에서 단 한건도 위반 농가가 없었다”며 “닭 진드기가 증가하는 하절기 살충제 집중검사를 통해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